

##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프로파일 탐색\*

임 채 영<sup>+</sup>

(한국국제대학교)

염 동 문<sup>++</sup>

(한국국제대학교)

정 현 태

(한국국제대학교)

### [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변인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3)’ 횡단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521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2개 계층 유형이 선택되었다. 1유형은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저위험집단으로, 2유형은 모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대적 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저위험집단을 기준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학업성적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낮을수록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은 가출경험과 학업성적수준에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에서 모두 저위험집단에 비해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 제한점,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스트레스, 유형, 프로파일분석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한국국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2016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토론 및 질문과 조언을 바탕으로 보완하였음.

<sup>+</sup> 주저자

<sup>++</sup> 교신저자(ksltv@hanmail.net)

## 1. 서론

스트레스는 인간의 생애주기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생활사건이며, 모든 연령에서 이를 경험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을 위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가정과 학교, 사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2015년 청소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3-24세 청소년의 10명 중 6명이 전반적인 생활(61.4%)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3-19세 청소년은 직장(진로)생활(67.2%), 학교생활(54.4%)에서 5-7명 정도가, 가정생활(34.4%)에서 3명 정도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여성가족부, 2015). 즉, 청소년기 스트레스 상당 부분이 청소년 자신과 가정, 학교 등의 진학·진로문제, 외모 및 신체적 조건, 학업 및 또래문제, 가정불화 및 경제문제와 같은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강지숙·황은희, 2012; 김영지 외, 2013; 염행철·조성연, 2007). 특히,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스트레스는 누적되면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와 청소년의 안녕을 위협하기도 하고, 신체 및 정신 건강상의 문제와 학교 및 사회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일으키며 인터넷 및 휴대폰 중독, 음주 및 흡연, 비행, 가출, 폭력, 심지어 자살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김기순·신선순, 2011; 민하영·유안진, 1998; 신승배·이주열, 2011; Hampel and peterman, 2006; Mclean and Crowe, 2002; Self-Brown et al., 2004).

이러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한다(Byrne and Mazanov, 2002: 185). 또한 성인이 되기 위한 과도기적 발달 변화와 이들의 전반적인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Seiffge-Krenke et al., 2009: 259), 청소년 문제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매우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Howard and Medwa, 2004: 391). 10-14세 청소년 2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Hampel and Peterman, 2006: 409)는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서적·행동적으로 문제행동을 일으켜 학교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조기발견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청소년 개인의 경험과 성격, 특징, 미래(진로), 그리고 대인관계와 경제적 상황 등의 주변 환경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다(Lazarus and Folkman, 1984: 21; Seiffge-Krenke et al., 2009: 259-260). 그러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잠재계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스트레스의 측정(김교현·전경구, 1993; 민하영·유안진, 1998; 조봉환, 2006)이나 영향 관련 요인(신승배·이주열, 2011; 위휘, 2005; 이근복·정우석, 2007; 장영애·손영미, 2006; 황혜정, 2006), 다른 변인과의 관계(강지숙·황은희, 2012; 김기순·신선순, 2011; 김연화, 2010; 박순희 외, 2015; 염행철·조성연, 2007; 정의롬, 2015),

스트레스 대처양식(김지숙·류상희, 2003; 조봉환, 2006)에 주목함으로써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하나의 동일한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개별적인 관계분석에 그치거나 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질적인 차이를 규명하지 못하였기에 통합적 시각을 제공하기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논의되어 왔던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추출하여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유형을 탐색하고, 스트레스 유형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과 그 특성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동일한 모집단으로 구성된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파일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규명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지도와 상담, 스트레스 중재전략 및 프로그램 등의 청소년복지에 대한 적절한 실천적 개입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은 몇 개가 존재하며, 각 하위유형 집단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둘째, 집단유형에 대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특성은 무엇인가?

## 2. 문헌고찰

###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제시하지만 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11-21; Sorensen, 1993: 6). 첫째, 스트레스가 자극(원인)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개인의 신체 및 심리 적응에 변화를 필요로 하는 위협적인 생활사건, 즉 외부 환경의 자극이나 외적인 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긍정적 자극으로서의 유스트레스(eustress)와 부정적 자극으로서의 디스트레스(distress)로 분류된다. 둘째, 스트레스가 반응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개인의 안정을 위협하는 외부의 환경적 자극에 대해 심신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응하려는 상태, 즉 외부 자극에 대해 보이는 개인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는 상호작용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외부 환경의 자극과 개인의 반응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Lazarus와 Folkman(1984: 19)은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초과하여 개인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를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이는 개인을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는 입장으로 포괄적인 스트레스 개념들을 제공하며, 동일 사건이더라도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자원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김지숙·류상희, 2003: 107).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적 원인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오히려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다(이영옥·이정숙, 2011: 54-55).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모든 사건은 스트레스 요인(stressor)이 되고, 이는 개인으로 하

여금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김광웅·박애선, 2001: 20).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발생빈도와 발생사건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심각한 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구분된다. 심각한 생활사건이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질병, 해고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는 큰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사건을 의미한다. 일상적 생활사건은 외로움, 친구 및 가족 간의 다툼이나 약속 어긋, 돈이나 물건 분실 등의 흔히 경험하는 생활사건을 말한다. 즉, 일상적 스트레스는 심각한 생활사건에 비해 빈번히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이 지각된 스트레스는 심신의 건강과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적응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다(Lazarus and Folkman, 1984: 24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란 환경적 자극과 개인적 반응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

청소년은 각각의 발달단계에서 성취해야하는 과업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김교현·전경구, 1993; 이영옥·이정숙, 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은 연구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구대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따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이 3개 법의 공통된 연령층의 청소년 집단은 초, 중, 고에 이르는 매우 다양한 발달단계의 대상으로 구성되고, 각기 다른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다른 발달과업을 가진 다층의 집단이다(임성택 외, 2010: 25).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청소년들이므로, 초, 중, 고에 이르는 다층의 발달단계로써 초기 청소년, 중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1)</sup>

초기 청소년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구체적 조작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규칙을 학습하게 되며, 근면성이 발달하고,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된다. 즉, 초기 청소년은 부모의 강력한 영향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또래친구들과의 접촉이나 인정에 민감해지고,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학업 등이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초기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개인과 가정 외의 사회적 요인으로 확대된다.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신체조건, 미래 예측의 어려움, 부모의 가정불화, 자녀교육태도,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에서부터 또래친구와의 관계, 학업문제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구성된다(이영옥·이정숙, 2011: 54; 조봉환, 2006; 황혜정, 2006: 195).

1)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초기 청소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중학교 취학 전·후에서 연령범위를 초등학생 4.5,6학년을 포함하고 있고(권은영·정현희, 2011; Akos, 2002), 중학생을 중기 청소년으로, 고등학생을 후기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신승배·이주열, 2011; 한성애, 2006; Schmeelk-cone and Zimmerman, 2003).

중기 청소년과 후기 청소년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에 인지적,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등 다양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남에 의해 적응능력을 크게 요구받는다. 또한 청소년기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성인이 되기 위해 제반 역할을 인식하는데 정서적 갈등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은 다른 시기와는 다른 특유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김기순·신선순, 2011: 99; 이성대 외, 2013: 56). 주위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의 형성,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진로, 학업성취문제, 사회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친구 및 이성 관계에서의 문제, 가족문제 등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이성대 외, 2013: 황혜정, 2006).

다음으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개인요인과 대인관계, 가정환경, 학교환경 등 다양한 환경요인이 포함되고 있다. 조봉환(2006)은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을 개인문제(외모, 성격, 경쟁), 대인관계(부모, 친구, 선배, 교사), 학업관련(시험, 성적, 과제, 학습내용, 학원), 가족관련(간섭·차별·금지, 신체적·언어적 학대, 경제적 문제)으로 구분하고 있다. 김기순과 신선순(2011)은 중학생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을 대인관계, 학업문제, 생활정도로 분류하였다. 김광웅과 박애선(2001)은 고등학교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으로 친구문제, 가정환경문제, 부모와의 갈등문제, 학업문제, 학교문제를 포함시켰다. 임성택 외(2010)는 초, 중, 고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을 부모관계, 친구관계, 학업, 용모 및 신체적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구성요인은 크게 개인요인과 가정환경요인, 학교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요인에는 청소년의 외모 및 신체적 조건(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었다(김옥희, 2010; 정승희·정영숙, 1998). 특히, 외모 및 신체적 조건이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요인에는 가정불화(강지숙·황은희, 2012; 권은영·정현희, 2011; 김광웅·박애선, 2001; 김기순·신선순, 2011; 민하영·유아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와 경제적 어려움(김기순·신선순, 2011; 이영옥·이정숙, 2011; 조봉환, 2006; 황혜정, 2006)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학교환경요인에서는 학업문제(김교현·전경구, 1993; 신승배·이주열, 2011;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와 또래와의 관계(권은영·정현희, 2011; 민하영·유아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이영옥·이정숙, 2011)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6개 지표 즉,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문제, 또래친구와의 관계, 외모 및 신체적 조건,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을 투입하여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자 한다.

### 3) 청소년 스트레스의 특성변인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불균형과 부적응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Bronfenbrenner and Morris, 2006; Sorensen, 1993). 이 때 개인차가 존재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변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

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인특성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대중매체를 통하여 성, 연령, 자신의 외모, 건강상태, 이념, 안녕 등의 개인적 배경을 비교할 수 있고,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가감할 수 있다(김지숙·류상희, 2003; 황혜정, 2006). 본 연구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학교급,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행복감, 가출경험, 학업성적수준을 분석에 포함하고자 한다.

학교급에 있어서는, 초기 보다 중기 청소년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고(황혜정, 2006), 중기에 비해 후기 청소년이 스트레스가 더 높은(신승배·이주열, 2011) 반면,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위휘, 2005). 이영옥과 이정숙(2011)의 연구에서는 각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기 청소년은 부모, 가정, 학업, 교사와 학교 스트레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초기 청소년은 친구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성애(2006)는 초기 보다 중·후기 청소년이 스트레스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성별에 있어서, 초기 청소년은 전체 스트레스 요인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김지숙·류상희, 2003; 황혜정, 2006), 영역별로 학업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고(조봉환, 2006), 부모, 물질에 대한 스트레스는 남학생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엄형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 이는 초기 청소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활동량이 많고 산만하여 부모로부터 스트레스를 더 지각하기 때문이다. 중기 청소년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는데(김교한·전경구, 1993; 김기순·신선순, 2011; 장영애·손영미, 2006; 황혜정, 2006), 이는 여학생이 사춘기적 변화가 심하고 학업성적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예측하였다. 후기 청소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부모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 이는 부모가 여자보다 남자에게 거는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부모와 더 많이 부딪힐 확률이 높았다(김광웅·박애선, 2001). 중·후기(신승배·이주열, 2011) 또는 초기에서 후기 청소년(한성애, 2006)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가 더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건강상태를 묻는 것이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중·후기 청소년이 초기 청소년에 비해 건강취약집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안진상·김희정, 2013).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였다.

행복은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행복은 인간의 삶에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특히, 어린 시절의 행복했던 경험은 남은 생애주기에 걸쳐 긍정의 힘을 제공하는 원천이 되며, 일상적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중요 변인이다(김연화, 2010; Park, 2004; McCullough et al., 2000). 김연화(2010)는 초기 청소년(초6)이 중기 청소년(중3)에 비해 행복감이 더 높다고 하였는데, 이는 초기에서 중·후기 청소년이 되면서 다양한 경험의 발달 및 점점 가중되는 학업부담, 사회적 기대감 등이 반영되는 현실을 지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학업과 경제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행복감에 관한 상관이 있었다.

가출경험과 관련하여, 청소년은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 경제적 어려움, 학교성적, 친구관계 등 다양한 수준의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가출충동이나 가출행위를 일으킨다(김은주, 2011). 청소년의 가출은 각종 비행과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폭력, 절도, 약물중독, 성매매 등

과 같은 각종 비행이나 범죄의 온상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강하여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신과 그 가족에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가족의 역기능을 강화시키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악순환을 고리가 이어진다(김경희 외, 2007).

학업성적은 청소년에게 상급학교로의 진학과 진로, 교사와 또래 관계의 변화, 새로운 역할 등에 하는데 있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권은영·정현희, 2011). 어떤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학업성적이 스트레스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중학생의 학업성적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숙·류상희, 2003; 황혜정, 2006). 청소년은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으며(장영애·손영미, 2006),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성적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있다. 특히 자신의 성적을 하위권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상위권 청소년에 비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위휘, 2005).

환경특성 변인으로는 가정환경을 분석에 포함한다. 가정환경은 출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미치는 가장 기초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다(김지숙·류상희, 2003). 일반적으로 부모의 부부관계나 양육태도, 부모 애착과 지지, 가정의 분위기나 경제적·문화적 상태 등의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권은영·정현희, 2011; 안혜원·이재연, 2009; Schmeelk-Cone and Zimmerman, 2003; Seiffge-Krenke et al., 2009). 특히, 가정의 경제적 상태, 즉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부모교육수준, 부모직업, 주택소유 여부 등을, 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의 진학희망 교육수준과 학업성취도(성적), 본인이 인지한 집안 경제사정의 어려움 등을 의미하지만 연구문제, 측정문제, 데이터 속성 등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하여 적절한 변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강유진·문재우, 2005; 강영호 외, 2005). 말하자면,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이근복·정우석, 2007)은 반면, 가족의 경제사정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기도 한다(황혜정, 2006).

이상으로, 스트레스는 청소년 개인특성과 환경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황혜정, 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여 이들의 특성과 그 차이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선행연구와 생태학적 모델을 근거로 개인특성과 환경특성 변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 3.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횡단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9,52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들을 청소년으로 본다. 이 자

료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수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였다.

## 2) 분석자료

### (1) 스트레스 지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란 학업, 또래관계,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6개 지표(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로 구성하고, 4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 4=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신뢰도( $\alpha$ )는 .756으로 나타났다.

### (2) 특성변인

청소년의 스트레스 유형을 분석한 이후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변인을 이용하였다. 특성변인은 학교급, 성별(여학생=0), 주관적 건강상태, 행복정도, 가출경험(없음=0), 학업성적수준, 가정의 경제사정이다.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는 리커트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며, 학업성적수준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수준이 높음을 의미하여, 가정의 경제사정은 리커트 7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상황이 좋음을 의미한다. 특성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특성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특성	구분	명	%	특성	구분	명	%
성별	남	4,789	50.3	학교급	초등학교	2,894	30.4
	여	4,732	49.7		중학교	3,067	32.2
가출 경험	무	9,041	95.2		고등학교	3,560	37.4
	유	460	4.8				
주관적 건강상태				최소=1, 최대=4, M=3.04, sd=0.645			
행복정도				최소=1, 최대=4, M=3.01, sd=0.678			
학업성적수준				최소=1, 최대=5, M=3.04, sd=1.007			
가정의 경제사정				최소=1, 최대=7, M=4.51, sd=1.213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고, 프로파일에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는 것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분석프로그램은 Mplus 5.21과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6가지 지표를 모형에 투입하여 잠재프로파일(LPA: 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고, 프로파일을 탐색한 후에는 각 프로파일에서 나타난 집단별 특성을 분산분석 및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적용하는 2단계로 진행되었다.

잠재프로파일분석은 평균과 분산의 독특한 프로파일 추정하는데 탁월하며(Muthén and Muthén, 2000), 잠재프로파일 간의 구별을 최적화하고 모수치의 추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Michael and Graham, 2008). 즉, 전통적인 집단분류 방법과 비교하여 등분산의 가정과 같은 척도에 따른 제약이 없으며,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모집단에 대한 통계적인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Iwamoto et al., 2010; Luyckx et al., 2008)에서 추천하는 3가지 준거(criteria)를 사용할 것이며, 첫째, 정보적합도(information index)중에서 우수하다고 밝혀진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와 SSABIC(Sample-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을 이용하여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계층의 수를 확인할 것이다. BIC와 SSABIC는 지수가 낮을수록 적합도가 좋다.<sup>2)</sup> 둘째, 대립가설과 영가설 간의 통계검증을 실시하는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 test)를 활용할 것이며, BLRT는  $p < 0.05$ 일 때, 대립가설을 지지한다. 셋째, 잠재프로파일의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대비 계층의 최소비율을 적용할 것이다. 최소비율은 선행연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Jung과 Wickrama(2008)은 모든 계층이 표본 수의 최소 5%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고, Hill 외(2000)는 표본 수의 1%이상이면 계층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4. 연구결과

### 1) 스트레스 유형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 (1) 잠재프로파일 모형 결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기 위하여 먼저,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적용하여 잠재계층을 결정하였고, 다음으로 결정된 잠재계층의 집단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개~6개 하위 유형(계층)을 가진 모형이 측정되었다. 주어진 조건별 결과를 살펴볼 때, 1개~6개 하위유형의 솔루션을 통틀어서 부수적·개념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최종 하위유형 수를 결정하였다.

2) 많이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중에서 AIC, Entropy 지수는 모형 설계에서 낮은 정확도 및 일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사용하지 않았음(권재기, 2012).

〈표 2〉 잠재프로파일분석의 모형 적합도

모형	BIC	saBIC	LMR	BLRT	잠재계층 분류율 %						
					1	2	3	4	5	6	
1-class	156047.644	156009.510	na	na	100						
2-class	148116.074	148055.695	0.0000	0.0000	47.0	53.0					
3-class	144651.745	144569.121	0.2580	0.0000	0.3	49.1	50.6				
4-class	130061.204	129956.335	0.0000	0.0000	56.3	12.4	0.3	31.0			
5-class	126731.169	126604.055	0.0280	0.0000	30.4	31.0	0.3	12.4	25.9		
6-class	140034.871	139885.513	0.2220	0.0000	40.2	46.8	0.2	12.6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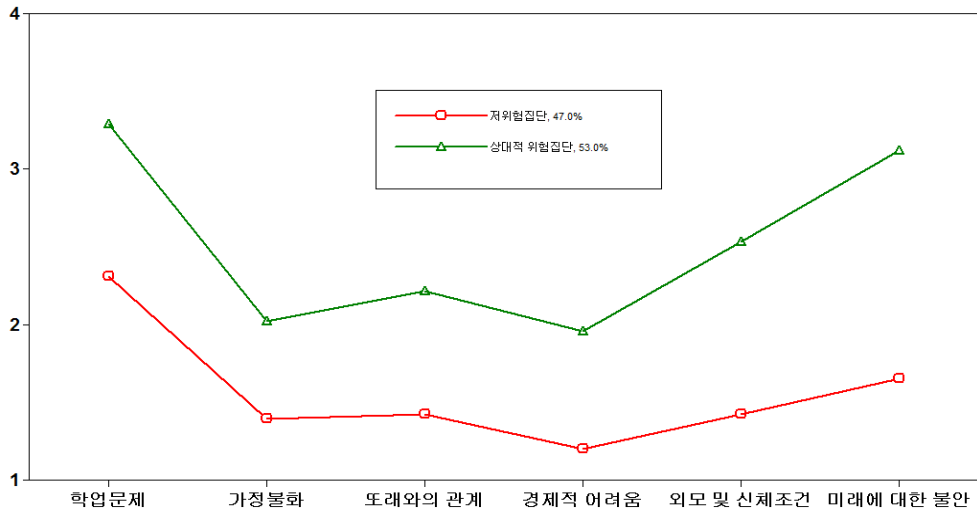
n=9,521 / na = not applicable.

〈표 2〉에 제시된 4가지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에 따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3계층과 6계층 솔루션은 LMR에서 대립가설이 채택되지 못하였으며, 4계층과 5계층은 잠재계층 분류율에서 1% 미만인 층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5가지 준거에 가장 부합되는 2개 계층 솔루션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선택된 2개 계층 솔루션은 BIC와 saBIC 모두 1계층 솔루션보다 수치가 적었고, LMR과 BLRT 또한 이 솔루션을 지지하고 있으며( $p < .000$ ), 잠재계층 분류율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프로파일 집단별 특성

초·중·고 청소년들의 6가지 지표에 따라 각각 스트레스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 집단 모두 같은 하위유형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의 6가지 지표에 따라 확인된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다음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스트레스 프로파일의 각 하위유형 집단의 특성을 관찰하여 집단을 명명하였다. 집단명 부여 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집단을 간략화 시켰다.

〈그림 1〉에서 유형 1은 '저위험 집단(47.0%, 4,473명)'으로 정하였다. 이 집단은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의 6개 지표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른 집단에 비해 6가지 지표가 모두 낮게 나타나 스트레스가 낮은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는 '상대적 위험집단(53.0%, 5,048명)'으로 정하였다. 이 집단은 학업문제, 가정불화, 또래와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외모 및 신체조건, 미래에 대한 불안의 6개 지표에서 모두 저위험 집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 위험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1〉 전체 청소년에 대한 프로파일 집단(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결정된 초·중·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의 6가지 지표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6가지 지표에 따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전체 청소년에서 프로파일 집단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그러므로 초·중·고의 세 집단 모두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2계층의 프로파일이 적합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지표에 따른 스트레스 프로파일의 집단별 차이

지표	초등학생 (n=2,894)			중학생 (n=3,067)			고등학생 (n=3,560)			전체 청소년 (n=9,521)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저 위험 집단	상대적 위험 집단	t
학업문제	2.08 (.927)	3.08 (.795)	-26.082***	2.62 (.941)	3.35 (.744)	-23.178***	2.90 (.844)	3.39 (.651)	-19.199***	2.29 (.921)	3.31 (.722)	-60.375***
가정불화	1.45 (.734)	2.38 (1.022)	-26.589***	1.34 (.603)	2.25 (.986)	-31.584***	1.35 (.619)	2.17 (.873)	-31.992***	1.38 (.689)	2.04 (.937)	-38.539***
또래와의 관계	1.46 (.709)	2.59 (1.098)	-31.909***	1.44 (.632)	2.52 (.942)	-38.002***	1.39 (.579)	2.35 (.785)	-41.213***	1.41 (.676)	2.23 (.921)	-49.430***
경제적인 어려움	1.16 (.410)	1.96 (1.135)	-27.755***	1.23 (.454)	2.06 (1.061)	-29.611***	1.31 (.542)	2.27 (.855)	-39.495***	1.18 (.432)	1.97 (.959)	-50.649***
외모 및 신체조건	1.34 (.594)	2.60 (1.023)	-40.476***	1.59 (.670)	2.77 (.959)	-40.100***	1.72 (.702)	2.71 (.815)	-38.867***	1.39 (.592)	2.56 (.900)	-73.647***
미래에 대한 불안	1.26 (.526)	2.50 (1.043)	-41.747***	2.00 (.866)	3.14 (.893)	-35.443***	2.71 (.875)	3.43 (.661)	-27.862***	1.62 (.774)	3.15 (.832)	-92.962***

평균(표준편차), \*\*\* $p < .001$

## 2) 청소년의 스트레스 집단유형별 특성 예측

청소년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준거집단으로 저위험 집단을 적용한 이항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연구모델의 적합도 검증에서 모델카이제곱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저위험 집단을 기준으로 상대적 위험집단과 비교하면, 초등학생과 전체 청소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행복정도가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학업성적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사정이 낮을수록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은 가출경험과 학업성적수준에서, 고등학생은 학업성적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사례수가 같기 때문에 Wald의 크기에 의해 각 회귀계수의 영향력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초등학생에서는 저위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 주관적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사정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행복정도, 성별, 가정의 경제사정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청소년에서는 행복정도, 가정의 경제사정,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에서 모두 저위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복정도로 분석되었다.<sup>3)</sup>

<표 4> 청소년의 스트레스 집단유형별 특성

변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전체 청소년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B	Wald	Exp(B)
성별	-.302	10.464	.739**	-.857	105.323	.425***	-.861	131.664	.423***	-.674	200.812	.510***
주관적 건강상태	-.483	36.592	.617***	-.484	46.312	.617***	-.428	43.018	.652***	-.582	199.226	.559***
행복정도	-.919	159.608	.399***	-1.145	230.788	.318***	-.978	187.192	.376***	-1.164	712.577	.312***
가출경험	.453	4.211	1.572*	.165	.776	1.180	.359	4.080	1.432*	.238	4.036	1.268*
학업성적수준	-.184	10.817	.832**	-.049	1.381	.952	-.009	.056	.991	-.146	33.629	.864***
가정의 경제사정	-.188	20.945	.829***	-.322	62.509	.724***	-.390	115.206	.677***	-.319	212.397	.727***
	-2Log우도= 2822.6 X <sup>2</sup> =411.368***			-2Log우도= 3,450.5 X <sup>2</sup> =681.231***			-2Log우도= 4,196.2 X <sup>2</sup> =690.826***			-2Log우도= 10,515.6 X <sup>2</sup> =2,516.329***		

준거집단: 저위험 집단, 성별(여=0), 가출경험(없음=0)

3) Wald 검증은 로지스틱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큰 경우에 표준오차도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도비 검증(Log likelihood ratio test)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계수의 절대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Wald 검증을 사용함.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여 각 집단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고, 집단별 특성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실천적 개입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적합도 지수와 잠재계층 분류율, 해석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은 '저위험집단(47.0%, 4,473명)'과 '상대적 위험집단(53.0%, 5,048명)'의 2개 잠재계층집단으로 추출되었다. '상대적 위험집단'은 초·중·고 청소년의 과반수이상인 학업문제(성적), 미래에 대한 불안, 외모 및 신체조건, 또래와의 관계,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등의 6개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고, '저위험집단'은 6개 지표에서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전반적인 일상생활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하고 있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초기 청소년 때부터 이미 낮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보편화 되어왔고, 학업문제 등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상황이 심화되면 상대적 위험집단에 들어갈 확률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유한 사회·문화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초기 청소년 때부터 이미 과열된 입시위주의 학업문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김교현·전경구, 1993; 신승배·이주열, 2011;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과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 미래(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당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특히, 고교 졸업 후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경험하였을 때 자살과 같은 문제행동 양상을 보이는 연구(김옥희, 2010)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외모 및 신체조건에 대한 스트레스도 상대적 위험집단에서 두드러지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다른 연구(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최근 외모 중시로 사회·문화적 태도가 은연중에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추종하도록 강화시킨다(조윤주, 2009; Morade et al., 2005). 때문에 외모 지상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할 필요가 요구되어진다. 가정불화는 초·중·후기 청소년 대부분이 발달과정 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다른 선행연구들(강지숙·황은희, 2012; 김광웅·박애선, 2001; 김기순·신선순, 2011; 민하영·유아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황혜정, 2006)의 결과를 지지하여 부모와의 관계 개선이 요구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또한 기존 연구(김기순·신선순, 2011; 이영옥·이정숙, 2011; 조봉환, 2006; 황혜정, 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권은영·정현희, 2011; 민하영·유안진, 1998; 염행철·조성연, 2007; 이영옥·이정숙, 2011)는 중·후기 청소년에 비해 초기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 어릴수록 친구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소외뿐만 아니라 놀림, 위협, 공격 등으로 인한 피해를 쉽게 경험한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 때부터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청소년의 스트레스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저위험집단을 준거집단으로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 학교급이 초

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높아질수록,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와 가정의 경제적 사정, 학업성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출경험이 있을수록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선행연구(장영애·이영자, 2015)에서는 행복 정도가 낮을수록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초기에서 후기 청소년으로 올라갈수록 행복 정도가 낮아지는데, 그 이유는 학업부담, 사회적 기대, 다양한 경험 등을 지각하기 때문이다(김연화, 2010).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선행연구결과(신승배·이주열, 2011; 한성애, 2006)와 일치한다. 특히, 중기 청소년의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더 높게 인지하는데, 그 이유는 사춘기적 변화가 남학생에 비해 더 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달단계별, 성별을 고려하여 맞춤형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계획과 개입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이 높았는데, 이는 학교급이 상승할수록 스트레스를 느끼고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안진상·김진상, 2013; 이봉숙 외, 2013)와 상호방향이 다르다. 이에, 학교의 교과과정에 정규시간을 확보하여 운동량을 늘려주거나 클럽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집안의 경제사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이근복·정우석, 2007; 위휘, 2005; 한성애, 2005)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학교나 사회기관에서 가정환경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가정형편이 어떠한지 확인하여 도움 필요시에는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 관련 기관 등의 사례관리통합서비스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업성적은 공부압력으로 인한 학업부담에 때문에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연구결과(장영애·손영미, 2006)와 일치한다. 대학입시 위주의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의해 지나치게 학업성적만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이 극적인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을 위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필요가 있다.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높은 결과는 김경희 외(200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된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들과의 상담과 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연구적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본 연구결과와의 유사점은 청소년들이 주로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 수준과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것이며, 차이점은 본 연구의 결과가 단순히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영향 관련 요인이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인과관계나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던 기존 연구를 보완한 것이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회귀분석 등은 변수 중심적 접근(variable-centered approach)으로 변수와 변수와의 관계가 모집단 내에서 동질적임을 기본가정으로 설정하여 연구대상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변수 간의 평균적인(nomothetic) 관련성에 주목하였다(손원숙·김경희, 2011). 그러나 잠재프로파일분석은 사람 중심적 접근(person-centered approach)으로 연구대상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에 초점을 두어 모집단 내에서 이질적인 특성 차이를 보이는 하위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그 집단유형별 특성변인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상대적 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이라는 2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스트레스 관련 특성변인이 저위험 집단에 비해 상대적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설명함으로써 유형별 집단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적 측면에서 실천적 개입

방안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데 의의가 있다하겠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따라 집단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 경험은 남은 생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청소년 때부터 행복, 성별, 건강상태, 가정의 경제적 사정, 학업성적, 가출경험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 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 유형별로 전문집중형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과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즉, 우리나라 교육제도 및 사회·문화적인 환경 상 학업성적이 낮은 청소년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집단유형별로 맞춤형 상담·지도가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자신감 향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예, 자기주도적 학습, 피어티칭, 스터디그룹, 창의적 문제해결 등의 프로그램) 등의 개발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상대적 위험집단과 저위험 집단 유형에 따라 실외놀이 및 치료 레크리에이션 원리를 활용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발달에 따른 집단 유형별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초기 청소년은 그 이전의 초기 청소년과는 달리 실외놀이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적용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므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실외놀이 문화의 확산과 스트레스를 관리 및 예방 교육을 이끌어 줄 전문 인력의 양성과 강화가 필요하다하겠다.

셋째,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관계와 또래부모관계의 증진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oleman(1988)에 연구에 의하면, 학교 간의 차이보다도 또래관계와 또래의 부모들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 때부터 개개인의 서로 다른 사회적 욕구에 의한 친구관계를 인정해주고 상호 이해와 지속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래관계 및 또래부모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친구란 어떤 존재이며, 서로 돕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성인은 친구관계의 질을 제고해 또래관계와 또래부모관계의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나가야 한다.

넷째, 가정과 학교, 관련 기관의 인적·물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통합기관 및 지역사회 통합 팀접근 방식을 통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련 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 통합기관이나 지역사회 통합 팀접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 접근방법이 필요하다하겠다. 이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유익한 성인, 즉 부모나 친구 부모, 교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하는 성인과 청소년과의 관계형성이, 서로 윈-윈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 관리와 예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한국청소년스트레스관리본부 및 예방협회나 기관의 설립, 운영 등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다섯째, 스트레스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스트레스와 관련

된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이고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 청소년의 프로파일 유형에 맞는 교육, 훈련, 상담, 치료 등이 적극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여섯째, 국가적 차원에서의 스트레스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초기청소년 때부터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과 범죄 등의 상황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외모 및 성적 지상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외모 및 성적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추종하도록 강화시키는 사회·문화적 태도가 청소년 자신의 가치관 정립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신승배·이주열, 2011; 조운주, 2009; Morade et al., 2005), 고정관념을 개선하려는 공익광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통해 추출한 스트레스 요인과 다른 특성 변인을 2차 자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의 선정과 검증이 제한적이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측정 자료의 수정·보완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횡적 자료를 기반으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조절변수나 매개변수의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 양상을 통한 특성 변인과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개인적 측면에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프로파일을 탐색하였는데, 농어촌과 도시의 지역적 측면의 특수성을 고려한 초·중·후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영호·조성일·양승미·이무송, 2005,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과 건강 관련 행태의 차이: 한국청소년패널 조사결과”, 『예방의학학회지』, 38(4): 391-400.
- 강유진·문재우, 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강지숙·황은희, 2012, “초기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연구』, 20(3): 149-157.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main.html>.
- 권은영·정현희, 2011,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 변화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6): 29-54.
- 권재기, 2012, 범주형 혼합모형의 잠재계층 수 결정을 위한 적합도 지수의 평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경희·김희영·김수강, 2007, “중학생 가출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개인·가정·사회환경요인을 중



- 심으로”,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8(4): 662-672.
- 김광웅·박애선, 2001, “청소년 스트레스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3: 19-40.
- 김교현·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 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2(2): 197-217.
- 김기순·신선순, 2011,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종합연구』, 9(3): 97-114.
- 김연화, 2010, “아동·청소년의 일상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행복감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87-307.
- 김영지·김경준·최윤호·유설희,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옥희, 2010, “고교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인과관계”, 『진로교육연구』, 23(2): 177-191.
- 김은주, 2011, “남녀 고등학생의 가출충동 원인”, 『동서간호학회지』, 17(2): 125-131.
- 김지숙·류상희, 2003,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6(1): 105-117.
- 민하영·유안진, 199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생활스트레스 척도 개발”, 『아동학회지』, 19(2): 77-96.
- 박순희·양정남·최은정, 2015, “저소득층 밀집지역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 자살생각 간의 관계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5): 301-323.
- 손원숙·김경희, 2011, “학교 향상도에 근거한 학교유형 분류 및 특성탐색”, 『교육평가연구』, 24(4): 943-962.
- 신승배·이주열, 2011, “일부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2(2): 81-96.
- 안진상·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 안혜원·이재연,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부모애착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 『아동학회지』, 30(1): 77-88.
- 염형철·조성연,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생태학적 변인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9(2): 1-21.
- 위휘, 2005, “청소년 스트레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4(2): 129-138.
- 이근복·정우석, 2007,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스트레스의 다층분석: ‘학교효과’는 존재하는가?”,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17-230.
- 이봉숙·김지수·김기숙, 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인적, 심리적, 건강행위와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7(1): 64-75.
- 이성대·염동문·김서정, 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1): 55-75.
- 이영옥·이정숙, 2011,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지각한 환경, 심리적 문제에 관한 발달단계별 차이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6(1): 53-79.
- 임성택·주동범·이금주,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스트레스, 공부압박감의 종단적 추이와 해석”, 『직업교육연구』, 29(1): 23-43.
- 장영애·손영미, 2006, “청소년 스트레스에 대한 관련 변인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7(4): 137-149.
- 장영애·이영자, 2013, “청소년의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또래관계, 학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3(4): 147-156.

- 정승희·정영숙, 1998, “초등학생이 일상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1(2): 279-284.
- 정의롭, 2015, “청소년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2(2): 193-214.
- 조봉환, 2006, “초등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아동교육』, 15(3): 5-21.
- 조윤주, 2009, “외모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7(8): 87-99.
- 통계청·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
- 한성애, 2006, “가정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고민내용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예술심리치료연구』, 2(2): 111-137.
- 황혜정, 2006,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9(1): 193-216.
- Akos, P., 2002, Student perceptions of the transition from elementary to middle school,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5: 339-345.
- Bronfenbrenner, U., and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I:14.
- Byrne, D. G., and Mazanov, J., 2002, “Sources of Stress in Australian Adolescents: Factor Structure and Stability over Time”, *Stress and Health*, 18: 185-192.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G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 Hampel, P., and Petermann, F., 2006, “Perceived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8: 409-415.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and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 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 Howard, M. S., and Medway, F. J., 2004, “Adolescents’ attachment and coping with stress”, *Psychology Schools*, 41(3): 391-402.
- Iwamoto, D. K., Corbin, W., & Fromme, K. 2010. “Trajectory classes of heavy episodic drinking among Asian American college students”, *Society for the Study of Addiction* 105: 1912-1920.
- Jung, T. and Wickrama, K. A. S. 2008. “An introduction to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Soc Pers Psychol Compass* 2: 302-307.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uyckx, K., Schwartz, S. J., Goossens, I., Soenens, B., and Beyers, W. 2008. “Developmental Typologies of Identity Formation and Adjustment in Female Emerging Adults : A Latent Class Growth Analysis Approach.”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8(4): 595-519.
- McCullough, G., Huebner, E. S., and Laughlin, J. E., 2000, “Life events, self concept, and adolescents’ positive subjective well be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37(3): 281-290.
- McLean, S., and Crowe, S. F., 2002, “The contribution of perceived control of stressful life event and thought suppression to the symptoms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n both non-clinical and clinical sample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429: 1-15.

- Michael, T., and Graham, G. S. 2008. "Using Latent Class Analysis to Identify Aggressors and Victims of Peer Harassment," *Aggressive Behavior*, 34: 203-213.
- Moradi, B., Dirks, D., and Matteson, A. 2005, "Roles of sexual objectification experiences and internalization of standards of beauty in eating disordersymptomatology: A test and extension of objectification theory.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52: 420-428.
- Muthén, B. O., and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 882-891.
- Park, N., 2004, "The role of subjective well-being in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1): 25-39.
- Schmeelk-Cone, K. H., and Zimmerman, M. A., 2003, "A Longitudinal analysis of stress in African-American youth: Predictors and outcomes of stress trajector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2(6): 419-430.
- Seiffge Krenke, I., Aunola, K., and Nurmi, J. E., 2009, "Changes in stress perception and coping during adolescence: The role of situational and personal factors", *Child development*, 80(1): 259-279.
- Self-Brown, S., Leblanc, M., and Kelly, M., 2004, "Effect of Violence Exposure and Daily Stressors on Psychological Outcomes in Cuban Adolescent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7(6): 519-527.
- Sorensen, E. S., 1993, *Children's stress and coping: A family perspective*, Guilford Press.

## A Study on the Profile Analysis of Types of Adolescents' Stress

Lim, Chae Young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Yeum, Dong Moo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Jung, Hyun Ta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ess profile that adolescent perceives by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characteristics variable per groups that appeared in profile. By using the cross-section data of 'A survey on the human right of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 in 2013' issu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LPA concerning the stress type was conducted and surveyed 9,521 adolescents from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seniors in high school nationwide.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wo class types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goodness-of-fit index and latent class classification rate. Type 1 is named low-risk group as they show low level, whereas type 2 is named relative risk group as they show high level. In order to predict th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 stress, the study conducte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basis of low-risk group. There is higher probability to belong to relative risk group, the more they are female students than male students, the less their subjective health condition and happiness, the more runaway experience, the less school grades and the less economic affluence in their household.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ts limitation and direction of follow-up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s: adolescent, stress, type, Latent Profile Analysis(LPA)

[논문 접수일 : 16. 05. 02, 심사일 : 16. 05. 09, 게재 확정일 : 16. 05. 23]